

남양건설, 안전관리 최고등급...전국 5곳뿐인 '무결점 현장'

국토부 작년 건설공사평가 '매우 우수'
명실상부 안전 관리 최우수기업 우뚝
마찬호 부회장 등 임원 매월 순시 결실

호남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 남양건설(주)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안전 관리 최우수 기업으로 우뚝 섰다.

특히 안전관리 최우수기업은 전국 건설 공사 186개 업체 중 5곳만 선정된 결과라 그동안 불철주야 꼼꼼하게 현장 안전 관리에 매진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남양건설(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남양건설은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최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최고등급 인증을 받은 이유는 꼼꼼한 현장 안전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부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진은 매월 전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순시를 펼치며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마찬호 남양건설 부회장 등 임원진이 지난해 고품질·무하자 안전 완벽시공을 위해 창성 기산아파트 신축 현장을 방문, 작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데 앞장섰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산업재해예방 활동실적 신인도 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9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갱신도 인증받았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남양건설은 2019년·2020년·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선정되면서 이 분야 으뜸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했으며 ▲안전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지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발주청 중 국가 공공기업인 경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신인도평가의 평가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업체 선정은 호남 건설업계의 자부심을 세운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원칙 아래 모든 현장에서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로봇 지속 투자 '자동차 대장주'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1월1일~1월6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55%, 코스닥은 33%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인 코스피 2조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조3천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이실현했다. 확실히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로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1월 들어서도 코스피 상승의 핵심은 반도체지만 12월 말처럼 나 홀로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사태 전후로 방산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증권업종, 네이버/카카오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업종까지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증시 훈풍이 점점 퍼지는 모양새다.

향후 증시 이벤트로는 8일은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6조5천억원이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9~20조원을 예상하는 만큼 컨센서스는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이 심했던 만큼 단기 셀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2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한다면 특별한 조정 없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월에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시장은 아마 일련의 불확실성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시장의 초점은 다시금 펀더멘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3분기 미국 GDP는 전기 대비 연율 기준 4%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고 4분기에도 3%대 초반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여기에 통화당국이 주도하는 유동성 공급까지 뒷받침돼 상방 요인이 다수 축적돼

있음이 확인된다.

미국 시장은 국내시장과 다르게 최근 및 몇몇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불씨를 당길 수 있는 촉매만 주어진다면 시장의 상승 탄력을 꽤나 높일 수 있는 환경이다. 금주부터 진행되는 CES(세계 최대 가전박람회)는 AI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 AI 버블 관련 시장의 논란이 잠잠해졌고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한결 낮아져 있다는 점(주도주 엔비디아의 예상 PER은 24배 수준)은 비이성적 과열이 아닌 합리적 매수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국내 주식시장의 과거 10년간 수익률 1위 섹터를 분석해보았다.

연도별 1위 섹터를 살펴보면 2016년 반도체, 2017년 IT가전, 2018년 조선, 2019년 반도체, 2020년 IT가전, 2021년 미디어/교육, 2022년 보험, 2023년 철강(2차전지), 2024년 조선, 2025년 원전 변압기 방산 등 기계인데 놀랍게도 2025년 수익률 1위가 반도체가 아니다. 반도체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상승 사이클을 시작한 지 반년 밖에 되지 않았고, 상반기만 봤을 때는 지수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했었다.

신기하게도 지난 10년간 연간 1위를 기록한 섹터가 이듬해에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는 주도주가 매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시장 특유의 빠르고 강력한 '순환매' 장세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고, 전국민적인 율령이 강하게 발현되며 언제나 오버슈팅을 만들 어내면서 짧고 강한 시세를 화끈하게 만들어내고 상승세를 끝내는 특징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저 10년간의 흐름에서 국내 핵심 산업 중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한 섹터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다. 현대차 그룹이라고 봐야 할 텐데, 피지컬 AI의 중심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면 그간 로봇쪽 투자를 지속해온 현대차그룹은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빅 사이클이 한번 출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수 5,000을 달성하려면 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대차 그룹의 선전이 필요한 시기이고 차근차근 그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신년인사회'가 열려 강기정 광주시장과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광주가 AI 혁신으로 도약하는 경제도시가 되길 다짐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상의 신년인사회 성료...각계인사 800여명 참석

광주상공회의소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새해의 포부를 밝히며 정진을 다짐하기 위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AI 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 경제도시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한상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저성장장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힘겨운 한 해였지만 국가적으로는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

계 6위의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신년사에서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전지역 특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영근 실태를 풀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탄약고를 비롯한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광주 미래의 100년을 설계하는 광주형 실리코밸리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잊지 못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지금부터 캐논 타이밍

2025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께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2025년 10월 15일(수) ~ 2026년 1월 7일(수)

납품 전문업체

캐논스토어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채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한온·한습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음악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일과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급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s.com

대표전화 | 062-234-4576

CMYK